

兜率歌 해독의 원리와 실제

- 향가 교육현장의 활용을 검하여 -

박재민(숙명여대)

< 목 차 >

- | | |
|-------------------|------------|
| 1. 서론 | 24. 기본 차자표 |
| 2. 해독의 현황 및 문제점 | 3. 어석의 실제 |
| 2.1. 한역시의 활용 | 4. 결론 |
| 2.2. 古語 轉寫의 불일치 | |
| 2.3. 借字 기본 개념의 혼란 | |

국문초록

본고는 월명사의 <도솔가>를 일관된 원칙에 의해 해독함으로써 <도솔가> 자체의 이해도 및 교육현장에서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한 결과물이다. 해독 작업에서 본고가 중점을 둔 사항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향찰 표기가 지닌 원칙을 혼란 없이 엄격히 적용하였다. 그간 향찰 해독을 주도한 일부 연구에서 우리는 개념의 혼란을 적지 않게 본 바 있다. 본고는 그 개념을 분명히 정리하며 크게 두 범주로 나누었다. 실질 의미를 가진 正用字와, 발음 기호로만 사용되는 借用字가 그것이다. 그리고 正用字는 音讀과 訓讀으로, 借用字는 音借와 訓借로 세분했다. 이를 <도솔가>에 나타난 모든 글자에 각각 명시하여 이 개념들이 혼란 없이 연구 및 교육 현장에서 구사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향가에 쓰인 어휘의 古語形을 정확히 제시하였다. 근래 향찰 해독은 어휘의 풍부한 제시보다는 결론적 형태만 제시하는 쪽으로 변화해 온 경향

이 있다. 이는 간편한 방식이기는 하지만,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최종 결론의 신빙성에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즉 확인되지 않는 고어와 고어의 활용형들이 범람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다. 이에 본고는 15세기 정음 자료들을 토대로 가장 정형에 가까운 고어를 제시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가 연구 및 교육현장에서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향가에 쓰인 어휘의 의미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결과적으로 보다 개연성 있는 해독이 되도록 하였다. 그간 우리는 향가에 쓰인 글자의 일부 특성을 확대하여 그것에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도술가>의 마지막 구에 나오는 ‘陪立羅良’을 ‘모셔 나립하리’ 등으로 해독하는 등이 그런 사례의 대표라 하겠다. 본고는 ‘羅’와 같은 향찰자는 몇 가지 이유로 볼 때 단순 차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를 다각도로 검토하는 과정과 결론을 보임으로써 연구 및 교육 현장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핵심어 : 도술가, 정용자, 차용자, 음독, 훈독, 음차, 훈차, 월명사, 헬리해성

1. 서론

월명사의 <도술가(兜率歌)>는 『삼국유사(三國遺事)』 권5에 다음과 같은 배경 설화와 함께 실려 전하는 4구체 향가이다.

경덕왕 19년(760년) 경자 4월 1일, 두 개의 해가 함께 나타나 열흘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일관이 아뢰기를 “인연 있는 스님을 청하여 산화공덕을 행하면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조원전에 단을 깨끗이 만들고 왕은 청양루에 행차하여 인연이 있는 스님을 기다렸다. 이때에 월명사가

천택사의 남쪽 길을 가고 있으니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불리오게 하여 단을 열고 계문을 짓게 하였다. 월명사가 아뢰었다. “신승은 단지 국선의 무리에만 속하여 향가만 알 뿐이고 성범(聲梵, 梵聲의 잘못)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왕이 “이미 인연 있는 중으로 뽑혔으니 비록 향가를 쓰더라도 좋다”고 하였다. 월명사가 이에 <도솔가>를 지어서 읊었다. 그 노랫말과 풀이는 이렇다.

今日此矣散花唱良巴寶白乎隱花良汝隱
直等隱心音矣命叱使以惡只
彌勒座主陪立羅良

龍樓此日散花歌	용루에서 오늘 산화가를 불러
挑送靑雲一片花	하늘로 한 조각 꽃을 뿌려 보낸다.
殷重直心之所使	은근하고 중한 곧은 마음의 시킨 바이니
遠邀兜率大僊家	멀리서 오는 도솔천의 부처님을 맞이하라.

마치자 해의 괴변이 곧 사라졌다. (이하 생략) <『삼국유사』 권5, 월명사 도솔가>¹⁾

비록 4句²⁾밖에 되지 않은 짧은 노래이긴 하지만 도솔가는 배경설화나 노랫말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을 지니고 있어 그간 적지 않은 연구자의 주목을 받아 왔다. 이 노래가 주목받은 가장 큰 이유는 설화의 첫 머리에 나타

1) 月明師兜率歌. 景德王十九年庚子四月朔, 二日並現挾[泮]旬不滅. 日官奏請, “緣僧作散花功德則可穰[禳].” 於是潔壇於朝元殿駕幸靑陽樓望緣僧. 時有月明師行于阡陌時[寺]之南路, 王使召之命開壇作啓. 明奏云, “臣僧但屬於國仙之徒, 只解鄉歌不閑聲梵.” 王曰, “既卜緣僧雖用鄉歌可也.” 明乃作兜率歌賦之. 其詞曰. 今日此矣散花唱良巴寶白乎隱花良汝隱, 直等隱心音矣命叱使以惡只, 彌勒座主陪立羅良. 解曰, 龍樓此日散花歌, 挑送靑雲一片花. 殷重直心之所使, 遠邀兜率大僊家. 既而日怪即滅. (후략) <『三國遺事』 卷5, 月明師 兜率歌>

2) 위 인용에서 보이지만 실제로는 3행으로 띄어쓰기되어 있다. 하지만 내용상 4행으로 판단할 수 있기에 선행연구에서는 그렇게 이해해 왔고 본고 또한 4행 구분에 이의가 없다.

난 수수께끼 같은 천문 현상과 노래가 보여 준 신비한 힘 때문이다. 설화에 서 말하는 ‘二日竝現 - 해가 두 개 나타난 현상’은 도대체 어떤 현상을 은유한 것인가? 또 그런 상황을 노래를 불러 해결했다는데, 이것은 신라 향가가 가진 주술성의 가장 표본적인 일화가 아닌가 !

이런 궁금증과 신비함에 대한 대답도 점차 적층되어 오고 있다. 가령 이 노래의 목적을 간결히 간파하여 다음과 같은 골격을 포착한 연구자도 있고

양주동(1942) : 日怪를 禳키 爲하야 彌勒佛을 邀致하는 노래³⁾

김동욱(1961) : 現實國土에 息災享福을 念願하는 … 儀式을 進行하기 위한 請佛 · 邀佛로서의 兜率歌는 彌勒世尊을 모시는 노래⁴⁾

‘해가 두 개 나타난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모범적인 답을 제시하는 교육 현장의 모습도 있다.

하늘에 해가 두 개 나타난 괴이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의식에서 불린 노래이다. 해가 둘이 나타났다는 것은 국가의 지도자가 두 명이 나타난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현재의 왕권에 도전하는 세력이 출현했음을 암시하는 것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행해진 의식이 산화공덕이고, 그 의식으로 불린 노래가 ‘도술가’이다.⁵⁾

한편 예전의 내용들에 더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들도 제출 · 수용되고 있음을 본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음과 같은 해독일 것이다.(제4구 방점 부분의 해독이 특이함)

오늘 이에 산화 불러

3) 양주동, 『고가연구』, 일조각, 1965, 24면. (초판은 『조선고가연구』, 박문서관, 1942.)

4) 김동욱, 「兜率歌研究」, 『國語歌謠의 研究』, 乙酉文化社, 1961, 40~41면.

5) 강승원 외, 「고전시가」, 『해법문학』, 천재교육, 2016, 38면.

솟어나게 한 꽃아 너는
 곧은 마음의 명에 부리워져
 미륵좌주 피서 나립(羅立)하라 <김완진 해독>6)

이렇듯 <도술가>의 연구는 과거의 쟁점들이 굳건히 자리하면서도 새로운 제안들이 유입되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흥미롭게 보면서도 필자는 현재의 도술가 연구에 다소 아쉬운 점 또한 있다고 본다. 가령 위의 ‘해가 두 개 나타난 현상’을 ‘임금을 위협하는 존재의 등장’으로 보는 통상적 시각의 경우, 이 답이 겹으로 보기에는 매우 모범적으로 보이긴 해도 조금 깊이 생각하면 일의 先後가 전도된 답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 일반적으로 천문 현상은 ‘미래에 일어날 불길한 조짐’이기에, ‘임금을 위협하는 세력의 등장’이라는 대답은 ‘두 개의 해는 미래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조짐인가?’에 대한 답은 될지언정, ‘그들이 무엇을 보고 해를 두 개라고 했을까?’에 대한 답은 되기 어렵다고 본다. ‘도대체 어떤 천체 현상을 보고서 그렇게 말했던 것일까’를 먼저 찾은 후에, 그 현상이 ‘해가 두 개 나타난 것과 비슷했으며’, 그 현상은 ‘임금에게 아주 불길한 조짐이니 인연 있는 중을 만나 이 조짐을 없애야 한다’로 답하는 것이 훨씬 더 인과관계에 부합하는 답안이 되리라고 본다.7)

아쉬운 점은 어학적 측면, 즉 해독의 불완전함에도 있다. 이 노래는 일연의 漢譯詩가 함께 소개되어 있어 해독의 이견이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그럼

6) 강승원 외, 상계서. 38면.

7) 근래에 제기된 서영교(『월명사 도술가와 헬리헤성』, 『九山論集』 제9집, 보조사상연구원, 2004.)의 “경덕왕 19년 4월 1일 하늘에 나타났던 두 개의 해는 760년 4월 전 세계적으로 관찰되었던 헬리헤성에 대한 신라인의 기록이다”라는 논의는 이 점에서 상당히 설득적이다. 이렇게 볼 때, ‘새로이 나타난 해’는 ‘헬리헤성의 출현’에 대한 신라인의 기록이며, 이 현상을 보고 ‘임금의 위협하는 일 - 새로운 세력의 등장도 포함 - 이 곧 생기리라는 조짐’으로 해석하여 향가를 불러 해결하려 했던 신라인의 모습을 비교적 순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설들이 연구 현장에 많이 유입되어야 보다 생산적이고 당대 정황에 부합하는 논의가 가능하리라고 본다.

에도 연구의 실제 현장을 보면 여전히 몇 갈래의 이견들이 존재한다. ‘巴寶-’ 및 ‘陪立羅良’를 대표적으로 뽑아 간략히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쟁점 어구	어구 해독 측면		문맥 해석 측면		
	巴寶-	陪立羅良	花[汝]	直心 命	彌勒座主
소창진평 (1929)	베푸- 꺾베풀다	모셔러라 꺾모실지니라	꽃	바른 마음	미륵좌주
양주동 (1942)	쑤- 꺾뿌리다	외셔라 꺾모셔라	꽃	은중한 마음	단상에 내려온 미륵불
정열모 (1954)	고보- 꺾깃긋다	모셔스랑 꺾모셨거라	해(日), 가짜 해	어진 마음	미륵부처
이탁 (1956)	빠븐- 꺾보내다	붓스라 꺾맛을 짓이다	國仙	곧은 마음	멀리 國仙
서재극 (1975)	뉘보- 꺾숫구치다	외셔라 꺾외셔라	꽃	곧은 마음	미륵좌주
김준영 (1979)	보보- 꺾돌아 보내다	외셔라 꺾모셔라	꽃	고든 마음	미륵불
김완진 (1980)	보보- 꺾숫아나게하다	모리셔 별라 꺾외셔 羅立하라	꽃	곧은 마음	미륵좌주
유창균 (1994)	돌보- 꺾은총을 입다	모리라라 꺾외실 것이로다	화랑	곧은 마음	미륵불
양희철 (1997)	자보- 꺾잡다	모셔라- 꺾외셔라아	화랑	곧은 마음	경덕왕
신재홍 (2000)	뉘보- 꺾날려보내다	외셔라 꺾모셔라	꽃	경덕왕의 마음	미륵불
			문학적 해석 부분은 신재홍(2004)를 참조함.		
정진원 (2008)	돌돌- 꺾돌고 도는	모셔 별라 꺾모셔 펼쳐라	꽃	보리심, 정토(淨土)	미륵부처

<표1. 도술가 해독의 이견 양상>

살펴보면 제2행 첫 어절에 나타난 ‘巴寶-’에 대한 이해가 무척 다양함을 본다. ‘巴’를 음차자로 보아 ‘바’계열의 고유어를 대응시키는 방향과 ‘巴’를 차자가 아닌 한자 본연의 의미를 지닌 字로 보아 ‘돌다(回)’의 의미로 보는 방향도 있어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제4행의 ‘陪立羅良’ 또한, 1어절로 보아 ‘모시다’로 보는 견해와 2어절로 보아 ‘모셔 羅立하라 · 모셔 펼쳐라’로 보는 두 갈래의 견해가 제시되어 있어 우리의 검토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어석은 문학적 해석에도 영향을 주어 적지 않은 편차를 초래하였는데 그 정황을 망라하면 다음과 같다.

쟁점 어구	어구 해독 측면		문맥 해석 측면		
	巴寶-	陪立羅良	花[=汝]	直心 命	彌勒座主
김동욱 (1961)	베푸는	모셔오라	한 송이 꽃	곧은 마음	미륵님
송정숙 (1984)	김완진(1980)을 따름		공양물, 매개자, 精進	곧은 마음	미륵, 해탈의 상징
김유미 (1988)	김완진(1980)을 따름		生繫力, 여성	곧은 마음	龍
이도흠 (1988)	숫아나게	모셔 羅立하라	꽃, 보살의 萬行	힘을 지닌 곧은 마음	미륵불
김승찬 (1991)	뿌린	모시어라	꽃, 座臺	淸淨 誠實한 마음의 명령	미륵불
조동일 (1994)	숫아오르게	모셔 벌이라	供養物, 媒介者	곧은 마음	미륵, 龍
김성기 (1997)	뿌려지는	모셔라	산화공덕	곧은 마음	지도자
류해춘 (1997)	김완진(1980)을 따름		꽃, 매개물, 呪物, 蓮華坐臺	곧은 마음	미륵불

장영우 (1998)	뿌리며	모셔라	汝 = 임금	곧은 마음	미륵좌주
오세정 (2001)	뵈혀	모시어라	꽃, 祭物, 蓮華坐, 매개체	참다운 마음	부처
최선경 (2001)	양주동(1942)를 따름		꽃	곧은 마음	미륵좌주
황병익 (2002)	김완진(1980)을 따름		꽃, 매개체	곧은 마음	중심의 미륵
서영교 (2004)	뿌린	모시게 하라	꽃잎, 奉獻物	곧은 마음	미륵좌주
신영명 (2005)	김완진(1980)을 따름		화랑도	正念眞如	경덕왕
윤석민 (2005)	김완진(1980)을 따름		꽃	곧은 마음	미륵불
이완형 (2005)	뿌리는	모셔라	꽃, 供養	(경덕왕의) 곧은 마음	미륵보살
최정선 (2008)	뿌린	되시어라	꽃, 인간과 佛의 매개체	곧은 마음	미륵불, 국왕
허남춘 (2008)	솟아오르게	모셔 나립하라	꽃, 供養物, 媒介體	곧은 마음	미르, 龍, 화랑정신
이동근 (2010)	김완진(1980)을 따름		꽃	곧은 마음	미륵불
엄국현 (2012)	뵈아	모셔라	화랑	(경덕왕의) 곧은 마음	불교
엄은렬 (2013)	김완진(1980)을 따름		供佛, 使者, 引導者	곧은 마음, 대비심, 순수한 마음	미륵좌주
김기종 (2014)	뿌리는	모셔라	꽃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下生한 미륵불
				차별 없는	미륵불

조현설 (2014)	뿔히어	모셔라	생명	마음	
김기종 (2015)	뿌리는	모셔라	꽃(자리)	持戒, 淸淨心, 善業	꽃자리의 미륵불
황병익 (2015)	바삐	뵈셔 서라!	供養	차별 없는 마음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미륵
유육례 (2015)	뿌린	모셔라	供養	곧은 음	미륵불(무속 신)
박인희 (2018)	∅	뵈셔 羅立하라	∅	사심이 없는 마음	왕
정진희 (2018)	불러올리네	모셔라	眞假의 판별자	정확한 판단	미륵불

<표2. 도술가의 문학적 해석 양상>

검게 칠한, 적지 않은 연구자들은 제4행의 마지막 구 ‘陪立羅良’를 2어절로 끊어 ‘陪立 羅良’로 해석한 김완진을 따르고 있는데, 그 중에는 ‘모셔서 羅立하라’는 어구에 이끌려 미륵좌주를 ‘王’으로까지 보는 결론에 다다른 연구자(신영명·박인희)도 있음을 본다. 해독의 작은 끊어 읽기 하나가 문학적 해독에서는 엄청난 거리로 갈라진 것이다.

이와 같이 <도술가>는 新說과 舊說이 섞이면서 문학적으로·어학적으로 적지 않은 논쟁의 여지를 안고 있는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다. 본고는 <도술가>를 둘러싼 어문학적 논쟁 중, 우선적으로 해독을 검토·정비함으로써 작품 이해의 확충에 참여하고자 한다.⁸⁾

8) 문학적 논쟁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앞서 말한 서영교의 논문이다. 760년 4월 1일이라는 시간이 정확히 맞아 떨어지고, 하늘에 밝은 물체가 나타난 것이란 점에서 두 개의 해가 나타난 것은 그 당시 세계적으로 관찰되었던 헬리 혜성임을 직감케 한다. 필자가 관심을 가진 또 다른 논쟁은 ‘주술의 방식’이다. 도술가에 대한 기존 논의는 ‘미륵좌주를 불러 그가 주체가 되어 나쁜 조짐의 해를 없애는 의식의 노래’로 일관하고 있으나, 서사 문맥을 선입견 없이 보면 “꽃을 보내 하늘에 나타난 해[미륵좌주]를 이 땅으로 불러들이는 데 성공한 의식의 노래”로 읽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통해 다룰 예정이다.

2. 해독의 현황 및 문제점

2.1. 한역시의 활용

주지하다시피, <도솔가>는 삼국유사 소재 향가로는 유일하게 漢譯詩가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 漢譯詩는 향가의 내용을 충실히 담고 있어 해독에 큰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즉 다음과 같이 향가와 한역시의 대부분의 字句가 대응됨을 보는 것이다.

향가	한역시	대응 결과
今日 此矣 散花 唱良 巴寶白乎隱 花良 汝隱 直等隱 心音矣 命叱 使以惡只 弥勒座主 陪立羅良	龍樓此日散花歌 挑送青雲一片花 殷重直心之所使 遠遯堯學大儒家 용루에서 오늘 산화가를 불러 하늘로 한 조각 꽃을 뿌려 보낸다. 은중한 곧은 마음의 시킨 바이니 멀리서 오는 도솔의 부처님 맞이 하라.	향가: 今日 此矣 散花 唱良 <hr/> 한역: 此日 龍樓 散花 歌 오늘 여기 산화 부름
		향가: 巴寶白乎隱 花良 汝隱 <hr/> 한역: 挑送 (青雲) 一片花 (?) 꽃
		향가: 直等隱 心音矣 命叱 使以惡只 <hr/> 한역: 殷重直 心 所使 곧음 마음 부름
		향가: 弥勒座主 陪立羅良 <hr/> 한역: 堯學大儒家 遠遯 미륵불 모심

<표3. 향가와 한역시의 대응표>

그러나 이런 강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서론에서 지적했듯이 여전히 해명되지 않은 어구들이 있다. 2행 첫 구의 ‘巴寶-’와 같은 구절이 그것이다. 한역시는 ‘挑送[돋워 보냄]’으로 되어 있으나, 향찰 표기로는 ‘ㄹ’음이 강한 ‘巴寶

-’로 표기되어 있어 해독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또 서론에서 지적한 문학연구자들 및 교육현장에 깊은 영향을 미친 김완진의 제4구의 해독 또한 해명을 필요로 하는 구절이다. 새로운 해독이 출현하여 자생력을 얻음으로써 오히려 후학들에게는 오히려 多岐亡羊의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2.2. 古語 轉寫의 불일치

도술가의 그간 어석에서 문제되는 점은 또 있다. 아래의 표를 보자.

	今日	此矣	散花	唱良
소창진평	오늘	이에	散花(톨)	<u>블너</u>
양주동	오늘	이에	散花	<u>블어</u>
김완진	오늘	이에	散花	<u>블러</u>
유창균	오늘	이디	散花	<u>브르라</u>
양희철	오늘	이의	산하(散花)	<u>브르아</u>
신재홍	오늘	이이	산화	<u>블러</u>

<표4. 도술가 해독의 고어 轉寫의 불일치 양상>

이 표는 그간의 주요 어석들을 비교한 것으로, 우선 문맥은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본다. 하지만 문제는 각 어구들의 古語 轉寫 형태가 연구자들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점이다. ‘今日’과 같은 어휘는 모두 ‘오늘’로 일치하지만, ‘唱良’과 같은 어휘는 ‘블너, 블어, 블러, 브르라, 브르아, 블러’ 등 다양각색의 어형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어떤 연구자의 경우는 선초의 문헌에서 문증되는 고어를 따르고, 어떤 연구자의 경우는 스스로가 재구한 어형을 따랐기에 생긴 결과이다. 따라서 본고는 조선 초의 문헌들에 수록된 해당 구절을 문헌을 통해 例示함으로써 가장 표준적인 어형으로 재구하는 것⁹⁾을 두 번째 목적으로 한다.

2.3. 借字 기본 개념의 혼란

본고의 어석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향찰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의 제시와 실제적 분류이다. 그간의 연구사를 살펴보면 적지 않은 용어의 혼란 속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본다. 연구자들 상호 간의 혼란뿐만 아니라, 동일한 저술 내에서도 音讀, 訓讀, 音借, 訓借 등의 기본 개념들이 불분명하게 설정되어 연구의 혼란을 초래한 면이 적지 않다. 다음 진술들은 불분명한 개념 설정의 대표적인 사례들이 된다.

① ‘訓讀’ 개념의 혼란

- ㉠ ‘巴寶’에 대하여는 김선기가 ‘寶’字를 訓讀하여 ‘뽕’이라 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내리 音讀하는 태도들을 보여왔으나, 해독 내용은 서로 많은 차이를 보였었다.¹⁰⁾
- ㉡ 著者は 이 進退兩難의 상황을 극복하는 길을 ‘羅’의 訓讀에서 찾는다. ‘羅’는 동사로서 ‘벌-’을 의미하기 때문에 ‘羅良’로서 ‘벌라(羅立하라)가 되는 것이다.¹¹⁾

② ‘訓借’ 개념의 혼란

- ㉢ ‘汝’ … 訓借로 ‘너’가 된다. … ‘너희’를 취해 본다. ¹²⁾
- ㉣ 成遣賜去 … ‘去’는 … 모두 訓借 ‘가’로 읽었다. 이것을 ‘가’로 읽으면 형태상으로는 의문형이 된다.¹³⁾

①은 ‘訓讀’에 대한 혼란을 보이기 위하여 인용하였다. 김완진의 저술에서

9) 향가는 신라어인데 한글로 문증하는 것의 한계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는 글을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연구의 현실에서 볼 때, 조선 초 문헌의 어형이 신라어에 가장 가까운 언어 중 하나라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신라어로 신라어를 푸는 것이 언젠가 성취될 수 있는 꿈이라면, 현재의 단계에서는 鮮初語의 언덕에 올라 신라어를 관찰하는 것이 최선임을 필자는 의심치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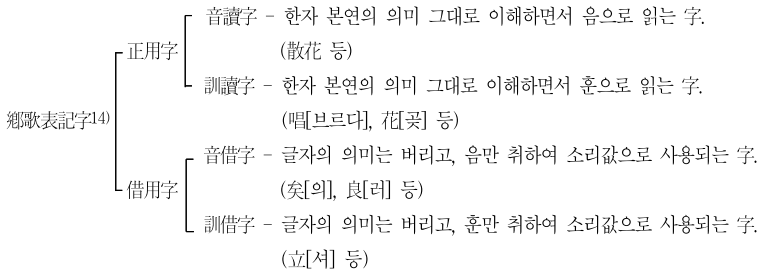
10) 김완진, 『향가해독법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0, 120면.

11) 김완진 상계서, 122~123면.

12) 유창균, 『향가비해』, 형설출판사, 1994, 701면.

13) 유창균 상계서, 678면.

위와 같은 진술은 자주 나타나는데, 필자는 이러한 진술이 적지 않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향가에 쓰인 字는 크게 ‘한자 본연의 의미로 쓰인 정용자’와 ‘한자 본연의 의미는 버리고 발음기호로만 쓰이는 차용자’로 大別되고, 이는 다시 전자의 경우 음으로 읽을 때 音讀, 훈으로 읽을 때 訓讀이라 칭하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 그 발음기호가 음에서 났으면 音借, 훈에서 났으면 訓借라고 부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향찰자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 언어체계인 것이다.(괄호 속은 <도솔가>의 용례를 들)



그런데 김완진은 그의 저술에서 ㉠처럼 본연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寶’도 ‘훈독’이라 부르고, ㉡처럼 본연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羅’도 ‘훈독’이라 부르고 있음을 본다. 이렇게 전혀 범주가 다른 글자를 하나의 용어로 묶어 칭하면 결국에는 해독의 혼란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본고는 이를 명확히 하여 기술할 필요를 느낀다. 즉, ‘訓讀’이란 용어는 위의 표와 같이 반드시 정용자(본연의 의미를 그대로 지니고 한자)에 한해서 쓰고, 그 정용자를 훈으로 읽을 때만 ‘훈독’이라고 칭한다. ‘唱良’의 ‘唱-’, ‘花良’의 ‘花’와 같은 자를 각각 ‘블-’, ‘꽃’로 읽었을 것으로 보고 이를 훈독자로 분류한다.

유창균의 저술에서 보이는 ‘훈차’의 개념 역시 분명하지 않다. ㉢처럼 한자 본연의 의미를 여전히 지니고 있는 ‘汝(너, 너희)’도 ‘훈차’로 부르고, ㉣처럼 한자 본연의 의미를 잃은 ‘去(가, 의문형 종결어미)’도 訓借로 부르고 있

14) 정용자는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글자’, 차용자는 ‘오직 한국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글자’로 생각하면 간명하다.

음을 본다. 역시 전혀 범주가 다른 향찰자를 하나의 개념으로 묶은 것이다. 향찰의 실질 체계에서 볼 때 이 글자들은 따로 구분되어 기술되어야 한다. 위의 표처럼 훈차는 차용자의 하위 개념으로 한자 자체의 의미를 잃은 것에만 적용해야 한다. 즉, ㉔과 같은 의문형어미 ‘가’를 위해 쓰인 ‘去’만 훈차자에 해당하며, ㉕과 같은 ‘汝(너, 너희)’는 여전히 한자의 본래 의미를 지닌 채 훈으로 읽는 것이므로 訓讀字에 해당하는 것이 된다.

요약하자면, 본고는 향가에 쓰인 글자를 크게 ‘한자 본연의 의미를 그대로 지니고 있는 자’와 ‘본연의 의미를 잃은 자’로 먼저 나누고 전자를 正用字, 후자를 借用字라 명명한다. 그리고 正用字의 경우 음으로 읽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는 音讀字, 훈으로 읽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는 訓讀字라 기술하고, 借用字의 경우 음에서 빌린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音借字, 훈에서 빌린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訓借字라고 기술한다. 正用字는 주로 체언 및 어간 등의 실질형태소에 출현하고, 借用字는 주로 조사 및 어미 등의 형식형태소에 출현하는 특징이 있다.¹⁵⁾

2.4. 기본 차자표

마지막으로 해독의 편의를 위해 아래 표를 덧붙인다. 이 표는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른 차자들의 음가표이다.

기존 연구자들이 설정하였던 향가에 쓰인 차자의 음의 범주 ¹⁶⁾								
향찰자	소창진평	양주동	정열모	서재극	김완진	유창균	양희철	신재홍
矣	의·이	아·디	익·의	익	익·디	와·디	와·디	익
良	라·니·여	아·어	아·야	아	아·어·	라·랑	아·랑	아·어·

15) 이상의 개념과 용어는 박재민(「고등학교의 訓借字·音借字 교육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어교육』 139, 한국어교육학회, 2012.)이 이미 다룬 바 있으며 본고는 이 체계를 따른다.

16) 표는 『신라향가변증』(박재민, 태학사, 2014, 120~125면.)을 따름.

	·애·논 等	·애·란 等	·애·랑· 라·等		라·러 等			러·等
巴	베	보	퍼	브	보	돌	漠(=把)	브
寶	푸	보	브	보	보	보	보	보
白	슌	同 一 見 解						
乎*	오·은	同 一 見 解						
隱	나·은·은 논·는	同 一 見 解						
良	라·니·여 ·애·논 等	아·어 애·란 等	아·야 애·랑· 라·等	아	아·어 라·러 等	라·랑	아·랑	아·어· 러·等
隱	나·은·은 논·는	同 一 見 解						
等	漢 드·든 더	든·든· 더	든·든· 든·기 리	든·든· 드	든·든	둘·든· 든	든·든	든·든
隱	나·은·은 논·는	同 一 見 解						
音	마·옴·음	同 一 見 解						
矣	와·이	와·디	와·의	와	와·디	와·디	와·디	와
叱	사·리	사·리	사	사	사	사	사	사
以	어·이	이	이·피	이	이·로	이·로· 止의誤	이·로	이
惡	어	읍	아	아	역	아	압	아
只	가·이	자·다· 기	가·기	가	가	가·기	가	가·기

立	셔	同 一 見 解						
羅	라러	라로	라스	라	라漢	라	라	라
良	라·너·여 ·애·논 等	아·어 애·란 等	아·야 애·랑 와 等	아	아·어 라·러 等	라·랑	아·랑	아·어 러 等

<표5. 향가에 쓰인 차자의 음의 범주>

3. 어석의 실제

I. 今日 此矣 散花 唱良 : 금일 이에 산화 불러

- 소창진평(1929): 오늘 이에 散花(를) 불러 : 오늘 이에 散花를 불러
 양주동(1942) : 오늘 이에 散花 불러 : 오늘 이에 「散花」를 불러
 김완진(1980) : 오늘 이에 散花 불러 : 오늘 이에 散花 불러
 유창균(1994) : 오늘 이디 散花 부르라 : 오늘 이곳에 모든 花郎을 부르는 바라
 양희철(1997) : 오늘 이의 散花 부르야 : 오늘 이에 흠어진 花郎 부르어
 신재홍(2000) : 오늘 이의 산화 불러 : 오늘 이에 산화(歌를) 불러
 정진원(2008) : 오늘 이의 散花 불러 : 오늘 여기에서 산화공덕 노래 불러

(1) 今日 : ①今日금일 [正用字, 音讀字], ②今日오늘, 今日오늘날 [正用字, 訓讀字]. ① · ② 모두 가능함 ; 현대어역은 ‘오늘’

한자 문화권에서 모두 ‘오늘’의 의미로 이해하고 월명사도 그 의미로 구사한 어휘이므로 正用字에 속한다. 소창진평이 이를 훈독자로 파악하여 ‘오늘’로 풀이한 이래 모든 연구자들이 이를 따르고 있다. ‘今日’의 고훈은 옛 문헌에서 ‘오늘’로 흔히 나타난다.

今日 烏捺 <계림유사>

오늘 岳陽樓에 올오라 : 今上岳陽樓 <두시초간14:13b>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독법은 이건의 여지가 있다. 월명사 혹은 향유자들이 ‘今日’을 반드시 ‘오늘’이라고 訓讀했다는 확증은 없기 때문이다. 즉 ‘今日’을 ‘금일’로 音讀했을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향가에서 正用字를 읽는 방식을 다음 구절들을 통해서 보자.

- ㉠ 善花公主主隱 <서동요>
- ㉡ 生死路隱 <제망매가>
- ㉢ 無量壽佛前乃 <도천수대비가>

㉠에서 보이는 ‘公主’의 경우, 공주의 우리말이 없다는 점에서 그들이 ‘공주’로 음독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生死路’의 경우 이 작품의 향유자들이 ‘생사로’로 음독했을지 아니면 ‘죽사릿길’¹⁷⁾로 혼독했을지 단언하기 어렵다. 이것은 읽는 당사자의 恣意的 취향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음독했다고 단언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의 ‘前乃’가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후행하는 ‘乃’로 볼 때 ‘前乃’는 ‘저내’로 음독되었던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볼 때 ‘今日’은 ㉡의 경우에 해당한다. 선초 문헌을 통해 볼 때 선조들은 ‘금일’이란 한자 어휘를 직접 구사하기도 했고, ‘오늘 · 오늬날’이란 고유어를 구사하기도 했음을 본다.

- 今日에 世尊이 드외시니 <월인석보1:4b>
- 如來 | 今日에 너비 이 會를 爲하야 <능엄경언해4:7a>
- 오늬 날 西京엿 掾들히(今日西京掾) <두시초간24:09a>
- 오늬 날 南湖에서(今日南湖) <두시초간15:20a>

17) ‘生死’의 고유어는 ‘죽사리’로 조선 초에도 흔히 쓰던 말이다.
죽사릿 險흔 길헤 드리 <석보상절13:57a>

따라서, 본조의 ‘今日’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폭을 넓혀야 한다. 기존의 혼독 일변도의 해독에 벗어나 음독의 가능성 또한 용인해 두어야 한다. 이에 본고는 ‘금일’로 음독했을 가능성과 ‘오늘 · 오늬날’로 혼독했을 가능성을 모두 인정한다.

(2) 此矣 : 此 [正用字, 訓讀字] + 矣에 [借用字, 音借字] ; 현대어역은 ‘여기에서’

‘此’는 한자 본연의 의미를 그대로 지니고 쓰였으므로 正用字이다. 고훈은 ‘이’. 언해 등에서 ‘차이’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는 반면, ‘이에’ 등으로는 흔히 쓰므로, 신라인들도 관습적으로 혼독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용례는 다음과 같다.

此 이 츠 <신증유합>
 어마니미 이에 잇다 흐더니잇고 <월인석보23:82a>

‘矣’는 차용자로, 향찰 및 이두 등에서 흔히 ‘의 · 에 · 디’ 등의 음역을 위해 쓰인다.([표5]를 참조할 것) ‘矣’의 음인 ‘의’에서 빌렸으므로 音借字에 속한다. 두 자가 결합한 ‘此矣’는 본 구절을 포함하여 향가 전체에서 3회 나타나며, 모두 月明師의 작품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용례는 다음과 같다.

此矣 有阿米 이에 있음에 <제망매가>
 此矣 彼矣 浮良 落尸 葉 이에 저에 떨어질 앞 <제망매가>

‘此矣’에 대응하는 鮮初의 어형은 ‘이에’이며 드물게 ‘이에’로도 나타난다.

이에셔 주거 데에 가사는 이를 알만홀 씨 <월인석보4:40a>
 이에 이실 썩르미시니 在此而已 <능엄경언해5:70a>

(3) 散花 : 散花산화 [正用字, 音讀字] ; 현대어역은 ‘산화가(散花歌)’

한자 본연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어휘이므로 正用字이다. 고유어의 흔적이 선초 문헌에서 보이지 않는다. 대응하는 고유어는 상정하기 어려운바 음독자로 판단된다. ‘散花’는 후행하는 ‘불러(唱良)’로 볼 때 ‘散花歌’의 준말이다. 본문의 한역시 및 배경설화에서도 ‘散花歌’라 명시해 두었다.

龍樓此日散花歌 <한역시>
 今俗謂此爲散花歌 <삼국유사 배경 설화>

한편, ‘散花’는 불가에서 부처를 공양하기 위해 꽃을 뿌리는 행위로 선초 자료인 『월인석보』 등에서도 이에 관련된 기록들이 보인다. 몇 송이를 뿌리기도 하고 한두 송이를 공중에 뿌리기도 하였다.

種種 供養 가져 城의 나아 부터를 맞즈바 저습고 일흠난 고졸 비터라 너느 사르미 供養 ㅁ차늘 善慧 닳섯 고졸 비호시니 다 空中에 머므러 곳 臺 드외어늘 後에 두 ㄹ기를 비호니 또 空中에 머므러 잇거늘 … <월인석보1:13b-14a>

상네 아츰마다 各各 衣袂에 한 고현 고졸 다마다가 다른 나랏 十萬億佛을 供養호습고 <월인석보7:65b>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다만 꽃 한 송이를 허공에 흩으며 부처를 염한 즉 곧 지극한 괴로움이 끝나고, 그 복이 다하지 않는다 (若有善男子善女人, 但以一華散虛空中念佛, 乃至畢苦其福不盡. <『摩訶般若波羅蜜經』 권21, 「三慧品」 >

도술가의 경우, 한역시를 따를 때, ‘한 송이’를 바친 것으로 보인다. 한역시에 ‘一片花’라고 명시되어 있다.

挑送靑雲一片花 하늘로 한 조각 꽃을 뜯우어 올려 보낸다. <한역시

2행〉

(4) 唱良 : 唱^ㄷ [正用字, 訓讀字] + 良^ㄹ [借用字, 音借字] ; 현대어역은 ‘블러’

‘唱’은 한자 본연의 의미로 쓰였으므로 正用字이다. 고훈은 ‘브르-’.

唱 브를 창 <신증유합>

‘良’은 차용자로 향찰, 구결, 이두 등에서 ‘아 ~ 의 ~ 에 ~ 라 ~ 러 ~ 란’의 음역을 나타내기 위해 쓰이는 음차자이다.([표5]를 참조할 것) ‘唱良’에 서의 ‘良’은 연결어미 ‘리’를 위해 사용되었는데, 선초 문헌의 ‘블러’에 대응된다.

슌벽 티며 놀애 블러 讚嘆호스바	<월인석보10:45a>
四衆이 놀애 블러 讚嘆호스바	<석보상절11:13a>

II. 巴寶白乎隱花良 : 봄습은 고자

소창진평: 베푸습은 꽃이여 너는	: 베풀어 드린 꽃이여 너는
양주동 : 썬살본 고자 너는	: 뿌리온 꽃아, 너는,
김완진 : 보보습본 고자 너는,	: 솟아나게 한 꽃아 너는,
유창균 : 돌보습본 고라 너희	: (나라의) 은총을 입고 있는 花郎 너희들은
양희철 : 자보 습은 꽃아 너	: 잡아 사되온 꽃(/화랑)아 너
신재홍 : 보보습본 고자, 너은,	: 날려 보내는 꽃아, 너는,
정진원 : 돌도습은 꽃아 너는	: 감도는 꽃이여 그대는

(1) 巴寶白乎隱 : 巴^ㅂ [借用字, 音借字] + 寶^ㅂ [借用字, 音借字] + 白^ㅍ [借用字, 訓借字] + 乎^ㅎ [借用字, 音借字] + 隱^ㄴ [借用字, 音借字] ; 현대어역은 ‘돌워 올린’

‘巴寶-’는 도술가에서 가장 난해한 어구이다. 2장의 <표3>에서도 보이듯이 ‘巴寶-’는 한역시의 ‘挑送(돋워 올려 보냄)’에 대응되는데, 이미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이 점은 지적되어 있다.

兜率歌의 解歌에서 이 2句에 該當한 것은 ‘挑送靑雲一片花’고 그 중 ‘巴寶’에 該當한 곳은 ‘挑送’이므로 ‘挑送’은 字意 그대로 ‘뿔아 보낸다, 돋구어 보낸다, 솟구쳐 보낸다’는 뜻으로 ‘巴寶’와 같은 말이다.¹⁸⁾

산화공덕의 현장에서 ‘꽃에 하는 어떤 행위’이기에, 그 의미 범주 또한 산화 행위를 기준으로 한다면 ‘뿌리다, 바치다’ 정도가 되고, 위의 견해처럼 한역시를 중시한다면 ‘올려 보내다’ 정도로 좁혀져 있기에 선학들의 관심은 그것에 해당하는 고유어를 찾는 일에 집중되었다. 양주동은 한역시의 語句보다는 ‘散花’ 행위를 더 중시하여, ‘(꽃을) 뿌리다’의 의미 범주에서 해독을 시도하였다. 그는 ‘巴寶-’의 음가들을 다음 용례를 통해서 취했다.

- ① 或作蛇卜 又巴 又伏 等 皆言童也<삼국유사 권4, 義解, 蛇福不言>
- ② 弓福 姓張氏 一名保阜 <삼국사기 권10, 新羅本紀, 興德王 3年>
俠士 弓巴 <삼국유사 권2, 神武大王>
- ③ 亡妹古巴里 <삼국유사 권3, 塔像, 南月山>
亡妹古寶里 <삼국유사 권3, 塔像, 南月山>¹⁹⁾

그는 『삼국유사』의 「사복불언」 조에 나타난 ①의 용례가 지닌 ‘蛇福 = 蛇卜 = 蛇巴 = 蛇伏’의 일련성에 주목하였다. 이를 근거로 신라인들이 ‘巴’를 ‘보’음을 표시하는 데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②의 용례를 통해서도 그는 ‘巴’가 ‘보’음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삼국사기』의 弓福이 『삼국유사』에서는 ‘弓巴’로 나타나는바, 이로 ‘弓福 = 弓巴’의 등식이 성립되어 ‘巴’의 음은 ‘보’라는 것이다. ③의 용례를 통해서 ‘寶’의 음상도 추정하였다. ‘寶’는 현대

18) 김준영, 『향가문학』, 형설출판사, 1981, 147면.

19) 양주동 전개서, 529~533면.

음이 ‘보’이기도 하지만, 신라시대 역시 동일 인물 ‘古巴里 = 古寶里’를 표시한 방식에서 보이듯 ‘寶’는 ‘巴’, 즉 ‘보’라는 것이다. 이후 ‘巴寶’를 ‘보보 → 뽀’²⁰⁾로 보고 최종적으로는 ‘썩, 썩, 썩’로 보면서 ‘散花’의 ‘散, 썩리다(뿌리다의 옛말)’말이라 보았다. 그럴 때 ‘巴寶-’는 다음 산화 공덕 현장들의 ‘빙-(흙뿌리다)’을 나타난 어휘로 이해된다.

하늬 고즈로 부터 우희 비호니 비호니 고지 須彌山 근더니 <월인석보14:20b>
 善慧 다스 고즈 비호시니 다 空中에 머므러 곳 薑 드외어늘 <월인석보1:13b-14a>
 두 줄기틀 비호니 또 空中에 머므러 잇거늘 <월인석보1:14a>
 曼殊沙花와 摩訶曼殊沙花를 비히 供養호습고 <월인석보7:37a>
 香 뛰우며 곳 비히 太子를 供養호습고 <월인석보11:9a>

한편 한역시에 나타난 어구에 더 비증을 두고 볼 때, ‘巴寶-’는 ‘돋워 보내다’의 의미 범주를 나타낸 말로 파악된다. ‘挑送’의 ‘挑’는 기본적으로 ‘위로 올리다’의 의미로 다음과 같은 어휘들을 만드는 자이다.

挑遠 멀리 쪼다 <방언유석>, 도분하다 挑忿 <한불자전>, 도도다 挑 <한불자전>, 挑燈 불 도도다 <역어유해>, 挑水 물 깎다 <역어유해 보>, 挑菜 킨다 <역어유해 보>, 挑竿 도도개 <방언유석>

20) 두 글자를 합하여 하나의 語頭子音群을 표시하였다고 본 양주동의 견해는 가능하다. 조선 후기 황윤석의 다음 언급에서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신라의 관제를 살펴보면 ‘大舒發翰’이 있는데 ‘大舒弗邯’이라고도 하니 소위 ‘弗邯’은 ‘發翰’으로 음이 가까워 변한 것이다. 大角干이 있는데 ‘角’은 곧 ‘舒發, 舒弗’이다. 지금 세속에서 ‘角’을 ‘썰’이라고 하는데, ‘舒’의 첫 자음이 우리말로로는 ‘스’이고 ‘發’은 ‘불’에 가깝고, 또 ‘弗’은 바로 그 음이 ‘불’인바, ‘스’를 ‘불’의 위에 놓아 ‘썰’이 되니, 곧 ‘角’은 방언이다. (按新羅官制 有曰 大舒發翰 亦曰 大舒弗邯 所謂弗邯即發翰 音近而字轉也 有曰 大角干者 角即舒發 舒弗也 今俗猶角爲 썰 舒之字母在諺文爲 ㅅ 發與불近 而弗又直音불 若可入於불之右上 則作썰 卽 角字方言也)” <황윤석, 『願齋遺藁』 권25, 華音方言字義解>

위의 ‘挑’는 대체로 ‘위로 돋우어 올리다’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字로 사용되고 있다. 이럴 때 다음에서 보이는 ‘뵘’은 ‘巴寶’의 ‘보보’와 상당한 음운적, 의미적 일치를 지니고 있음을 본다.

踊은 뵘넢씨오 <월인석보2:14a>

歡喜踊躍은 깃거 느소슬씨라 <월인석보8:48b>

踊 뵘노슬 용,躍 뵘노슬 약 <신증유합>

翺 뵘놀 고,翺 뵘놀 상,騰 뵘놀 등,驤 뵘놀 양,踴 뵘놀 용,躍 뵘놀 약 <훈몽자회>

그렇다면 ‘巴寶’는 ‘보보’로써 ‘뵘’음을 나타내기 위한 語群일 가능성이 있다. 결국 우리는 산화공덕의 행위를 더 중요시하여 ‘뿌리다’의 의미로 볼 것인가, 아니면 漢譯詩의 ‘挑送’을 더 중요시하여 ‘뵘-(돋워 올림)’으로 볼 것인가의 岐路에 서게 된다. 본고는 이 둘 모두 음상어나 문맥어나 모두 해독의 궁극적 지점에 상당히 근접한 것이라 보고 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개연성 있는 것을 골라야 한다면, ‘뵘-’을 택하고 싶다. 산화 행위를 통한 것도 꼭 개연성 있는 추론이지만, 아무래도 한역시가 도술가의 의미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白’은 향찰, 구결, 이두에서 ‘습 · 즈 · 습’ 음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차용자이고, ‘乎’는 향찰에서 ‘오’음이 필요한 곳에서 사용되는 차용자이며, ‘은’은 향찰, 구결, 이두에서 ‘니’음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차용자이다.([표5]를 참조할 것) ‘白’은 훈에서 발음을 빌렸으므로 훈차자, ‘乎, 隱’은 모두 그 음들에서 발음을 빌렸으므로 음차자에 해당한다. 이 세 글자가 결합된 ‘-白乎隱’은 향가에 흔히 어간에 직접 결합되어 나타나는 어휘제이다.

慕呂白乎隱 佛體 <보현1>

刹刹每如 邀里白乎隱 <보현1>

塵塵虛物叱 邀呂白乎隱 <보현2>

毛等 盡良 白乎隱 乃兮 <보현2>

소창진평 이래 거의 모든 연구자들이 ‘-습은’으로 읽고 있으며 이는 정당한 독법 중 하나로 인정된다. 선행 어간을 ‘봄-’으로 볼 때는 ‘-습은(=스븐 · 스은)’, ‘보보-’로 볼 때는 ‘-습은(=스븐 · 스은)’이 된다.

듣^으온 전^으츠로 둠^으 덜^으 일^으허 놀^으라 <능엄경언해01:86b>
 피^으샤물 님^으스^으온 전^으츠로 身心이 불^으그니^으라 <능엄경언해5:30b>
 衆生이 일^으흠 디니^으스^으덜^으며 보^으삼 님^으스^으븐 사^으름도 다 解脫을 得^으히^으 하^으
 시니 <석보상절21:02a>
 부^으터 울^으워리 보^으스^으븐 사^으르미 <석보상절23:12a>

이상, ‘봄습은’.

(2) 花良 : 花꽃 [正用字, 訓讀字] + 良아 [借用字, 音借字] ; 현대어역은 ‘꽃아’

‘花’는 한자 본연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正用字이다. 음이 아니라 훈으로 읽었으리라 판단되므로 訓讀字이다. 고훈은 ‘꽃’. 解詩에서는 ‘一片花’라고 하였다.

花는 고지라 <월인석보1:23a>
 挑送靑雲一片花 <본조, 한역시>

‘良’은 차용자로서 향찰, 구결, 이두 등에서 ‘아 ~ 익 ~ 에 ~ 라 ~ 러 ~ 란’의 음역을 나타내기 위해 쓰이는 음차자이다.([표5]를 참조할 것) ‘花良’에서의 ‘良’은 호격의 ‘아’를 위해 사용되었는데, 향찰 및 구결에 다수의 용례가 있다. 선초의 대응 어형을 더 보이면 다음과 같다.

哀反多矣 徒良(무리들아) <풍요>
 善男子良(선남자여) <구역인왕경11:22>

大王^아 네 나히 며친 뻘 恒河^스 므를 본다 <능엄경언해2:8b>
 文殊^아 아라라 <석보상절13:26a>

Ⅲ. 汝隱²¹⁾ 直等隱 心音矣 命叱 使以惡只 : 너는 고든 무스미 명사 브리약

소창진평 : 고든 무스미 命을 바려 : 곧은 마음의 命을 부려서
 양주동 : 고든 무스미 命사 브리업디 : 곧은 마음의 命을 부리웁기에,
 김완진 : 고든 무스미 命사 브리이약 : 곧은 마음의 命에 부리워져
 유창균 : 고든 무스미 命사 브리야기 : 한결같이 곧은 마음으로 목숨을
 바쳐
 양희철 : 고든 무스미의 시깃 브리-약 : 곧은 마음의 시깃을 행하여
 신재홍 : 고든 무스미 命사 브리이약 : 곧은 마음의 命에 부리워져
 정진원 : 고든 무스미 命사 브리약 : 곧은 마음의 命을 받아서

(1) 汝隱 : 汝^너 [正用字, 訓讀字] + 隱^는 [借用字, 音借字]; 현대어역은 ‘너는’

‘汝’는 한자 본연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正用字이다. 고훈은 ‘너’.

汝 너 여 <신증유합>
 너는 죽디 마오라 <월인석보20:77a>

‘隱’은 차용자로 향찰, 구결, 이두 등에서 ‘ㄴ~은~은~는’ 등의 음을 위해 사용된다([표5]를 참조할 것). 이상 ‘汝隱’은 ‘너는’으로 되는데, 선초의 다음

21) 원문에는 ‘汝隱’이 앞쪽에 붙어 있으나, 본고는 뒤쪽에 붙여 해독한다. <도솔가>의 원문은 서론에서 제시하였듯이 3행으로 분절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를 4행으로 분절하여 해독하고 있다. 향가에는 분절의 오류가 잦는데 <도솔가> 역시 그런 오류가 잠재해 있을 것으로 보고 의미에 따라 교정하여 해독했던 것이다. 합당한 이유가 있는 곳은 그 원형을 추정하여 복원 후 해독하는 것이 신라인의 향유 정황을 제대로 읽은 것이므로, 신중하다는 전제하에, 본고는 복원을 실행하는 것에 공감한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본고에서는 ‘汝隱’ 또한 뒤쪽으로 끊어 읽으려 한다. 내용상 그것이 무난하고, 또 한역시와 비교해 볼 때, 그렇게 하면 1,2,3,4구의 대응이 완전해진다는 점이 그 이유이다.

어형에 대응한다.

健壯[○] 訥[○] 너는 머므디 말라(健者勿濇巡) <두시초간19:32b>

나는 나히 늑고 너는 저므니 <월인석보13:24b>

(2) 直等隱 : 直[○] [正用字, 訓讀字] + 等^ㄷ [借用字, 音借字] + 隱^ㄴ [借用字, 音借字]; 현대어역은 ‘곧은’

‘直’은 한자 본연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正用字이다. 고훈은 ‘곧-’.

直 고 돌 디 <신증유합>, 直 고 든 디 <광주천자문>

고든 道로 돈닐시 너가는 길희 어려우물 시름 아니흐노라 : 直道
無憂行路難 <두시초간11:08b-09a>

‘等隱’은 ‘곧-’의 관형형 ‘고든’의 末音を 표한 字들이다. ‘等’은 차용자로 향찰, 구결, 이두 등에서 ‘ㄷ~드~든~든~들~들’ 등의 음을 위해 사용된다. ‘隱’ 또한 차용자로 향찰, 구결, 이두 등에서 ‘ㄴ~은~은’ 등의 음을 위해 사용된다([표5]를 참조할 것). ‘等’과 ‘隱’ 모두 글자의 음을 따서 소리값을 빌린 것이므로 음차자에 해당한다.

‘直等隱’은 ‘고든’이 되는데 이는 후행하는 ‘心音’을 수식하며 ‘直心’의 뜻을 표한 말이 된다. ‘直心’은 불가의 한 관용어로 ‘맑고 깨끗한 根性’을 뜻한다.

네 이제 無上 菩提眞發明性を 窮究코져 홀딘댄 諸佛證호산 無上
正覺本眞發現호 明淨호 性이라 고든 므스므로 내 무로물 對答호야
사 호리라 十方如來ㅣ 다 호 道ㅣ 전츠로 生死에 나 여회시느니
다 고든 므스므시니라 므슴과 말슴괘 고든 전츠로 이갓디 終始地
位에 니르리 中間에 기리 여러 구븐 相이 업스니라 ... 道는 本來
平호며 곧거늘 ㄷ을브터 굽느니 장츠드려 正호 道를 窮究호야 갓
근 ㄷ을 고터 더로려 호실씨 이런드러 勅호샤디 고도므로 對答호

라 하시니라 ㅁ슴과 말슴께 고든면 道에 어루 즐거어 나사가리라
一道는 다 고든 ㅁ슴ㅁ로 호물 니르시니라 <능엄경언해1:44a-b>

(3) 心音矣 : 心ㅁ슴 [正用字, 訓讀字] + 音ㅁ [借用字, 音借字] + 矣의 [借用字, 音借字] ; 현대어역은 ‘마음의’

‘心’은 한자 본연의 의미로 쓰인 正用字이다. 心의 뒤에 ‘ㅁ’음을 나타내는 ‘音’字([표5]를 참조할 것)가 접속되어 있어 ‘ㅁ슴’으로 訓讀되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心 ㅁ슴 심 <광주천자문>
信心은 믿는 ㅁ슴ㅁ라 <석보상절:9,11b>

‘心音矣’는 다음의 ‘ㅁ슴ㅁ’에 대응하는 표기이다.

그 ㅁ 世尊이 大弟子들히 ㅁ슴ㅁ 念을 아리시고 <월인석보
13:64b-65a>
彌勒菩薩이 모든 ㅁ슴ㅁ 疑心을 보며 <석보상절11:17a>

(4) 命叱 : 命명 [正用字, 音讀] + 叱ㅁ [借用字, 音借] ; 현대어역은 ‘명령’

‘命’은 한자 본연의 의미로 쓰였으므로 正用字이다. 여기서는 ‘直心에서 우러나 시키는 命’이란 뜻이다. ‘叱’은 향찰, 구결, 이두에서 ‘ㅁ’음이 필요한 곳에 쓰이는 차용자로, ‘질’의 초성 ‘ㅁ’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음차자에 해당한다([표5]를 참조할 것). 단 이 곳에서의 ‘ㅁ’의 역할은 未詳. 이상, 命ㅁ

(5) 使以惡只 : 使ㅁ리 [正用字, 訓讀字] + 以ㅁ [借用字, 音借字] + 惡의 [借用字, 音借字] + 只ㅁ [借用字, 音借字] ; 현대어역은 ‘부려져서, 받들어’

‘使’는 한자 본연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正用字이다. 고훈은 ‘브리-’.

使者는 브리신 사르미라 <석보상절6:2a>
象兵은 ㄹ러쳐 싸호매 브리는 고키리오 <월인석보1:27b>
王이 梵志를 이 각싯 지브 브리신대 <석보상절3:12a>

‘以’는 향찰, 구결, 이두에서 ‘이’음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차용자, ‘惡’는 향찰에서 ‘악’음이 필요한 곳에서 사용되는 차용자, ‘只’는 향찰, 구결, 이두에서 ‘기’음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차용자이다.([표5]를 참조할 것) ‘以, 惡, 只’ 모두 그 음에서 소리를 빌렸으므로 음차자에 해당한다.

향가에는 본 용례나, ‘功德叱 身乙 對爲白惡只 <보현2>’ 등에서처럼 용언의 末尾에 ‘-惡只’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중세국어자료에서 다음처럼 드물게 보이는 강세의 ‘-악 · 약’에 대응하는 것이다.

ᄃ다가 分別性이 드트를 여희약 體 업숯딘댄 <능엄경언해1:90a>
제 子細히 스랑ᄃ약 哀慕를 忝히 말라 <능엄경언해2:54a>
幸혀 爲ᄃ약 어딘 府主의 내 글위를 通達ᄃ라(幸爲達書賢府主)
<두시초간25:56b>

이상, 브리약.

IV. 彌勒座主 陪立羅良 : 彌勒座主 毘舍라아

- 소창진평 : 彌勒座主 모셔러라 : 彌勒座主를 모셔라
- 양주동 : 彌勒座主 毘舍와 : 彌勒座主를 모셔라!
- 김완진 : 彌勒座主 모리셔 별라 : 彌勒座主 毘舍 羅立하라
- 유창균 : 彌勒座主 모리라라 : 여기에 彌勒座主를 毘舍 받들 것이로다
- 양희철 : 미륵자주(彌勒座主) 모셔라 : 미륵보살(/경덕왕)을 毘舍라아
- 신재홍 : 彌勒座主 毘舍라 : 彌勒座主 모셔라.
- 정진원 : 미륵부처 모셔 별라 : 용화세계 모셔 펼쳐라

(1) 彌勒座主: 彌勒座主^{미륵좌주} [正用字²², 音讀字]; 현대어역은 ‘미륵불’

‘彌勒座主’는 ‘彌勒菩薩’을 칭한 말이다. 梵名은 ‘Maitreya’. 인도 바라내국(婆羅奈國)의 바라문(婆羅門) 집에서 태어나 석존의 교화를 받고, 미래에 성불하리라는 수기를 받아, 도솔천(兜率天)에 올라가 있으면서 지금 그 하늘에서 천인들을 교화한다고 하는 佛.

彌勒: 梵名 Maitreya. 彌勒出生於婆羅門家庭 後爲佛弟子 先佛入滅 以菩薩身爲天人說法 住於兜率天. <불광대사전, 上>

‘座主’는 설법회 등에서 강을 강독하는 승려를 칭하는 말이나 본조에서는 彌勒菩薩이 兜率天의 獅子座에서 天人들을 교화하고, 내려와서도 3번의 법회를 통하여 중생을 교화할 인물이기에 ‘座主’라고 표현한 것이다. 漢譯詩에서는 ‘도솔대선가(兜率大僊家)’²³라 표현하였다.

殷重直心之所使 遠邀兜率大僊家 <한역시 3,4句>

(2) 陪立羅良: 陪^피시⁻ [正用字, 訓讀字] + 立^서 [借用字, 訓借字] + 羅^라 [借用字, 音借字] + 良^아 [借用字, 音借字]; 현대어역은 ‘모셔라’

‘陪’는 한자 본연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正用字이다. 고훈은 ‘피시-’이다.

陪 피실 비 <신증유합 · 광주천자문>

侍 피실 시 <신증유합 · 광주천자문>

22) 엄밀히 말하면 ‘彌勒’은 범어 ‘Maitreya’의 음역이므로 음차자라고 할 수 있으나, 이미 한자 문화권에서 모두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고 있으므로 일반 한자어로 처리하여 ‘정용자’에 넣었다. 이와 같은 어휘들로는 ‘미타찰(彌陀刹, <제망매가>’) 등이 있다.

23) ‘大僊’은 ‘大仙’이라고도 하며 역시 ‘佛’의 이칭이다. 범어로는 ‘maharṣi.’

‘立’은 향찰, 구결, 이두에서 모두 ‘셔’음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차용자이다([표5]를 참조할 것).訓인 ‘셔’(立 설 립, 『신증유합』 등)에서 빌린 것이므로訓借字이다. 이상, ‘陪立’은 ‘피셔’를 표현한 구절이 되며, 선초 어형의 다음 구절에 대응된다.

太子 피셔 天神 祭^호는 디 <석보상절3:3b>
 날마다 驄馬를 피셔 노노라 (日陪驄馬遊) <두시초간15:43b>

‘羅’는 향찰, 구결, 이두에서 주로 ‘라’음을 위한 차용자로 사용되고, ‘良’ 또한 향찰, 구결, 이두 등에서 ‘아 ~ 익 ~ 에 ~ 라 ~ 러 ~ 란’의 음역을 나타내기 위해 쓰이는 차용자이다([표5]를 참조할 것). ‘羅·良’의 음에서 빌린 것이므로 두 자는 모두 음차자이다. 이 두 자는 다음과 같이 연속되어 나와 감탄 또는 명령형의 ‘~라’를 표기하기도 한다.

脚烏伊四是良羅 (넛이러라) <처용가>
 此盼喰惡支治良羅 (다스러라) <안민가>

본조의 ‘彌勒座主陪立羅良’는 순서가 바뀐 것이기는 하지만 위 두 용례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羅’와 ‘良’은 그 표시하는 음역이 유사하여 다음처럼 서로 호환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癩^로疹^진 : 豆等良只, 置等羅只 <향약구급방>
 癩 : 두드러기 은, 疹 : 두드러기 딴 <훈몽자회>

漢譯詩에서는 유사 의미인 ‘邀’字로 표현해 두었다.

遠邀兜率大僊家 <해시>
 邀 마줄 요 <신증유합>
 이상, 피셔라

한편 연구초기에 큰 문제없이 해독되어 있던 이 구절은 김완진에 이르러 비교적 큰 폭으로 수정 해독된다.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끊어 읽으며, “(꽃들은) 모리서 羅立하라”로 해독한다. 이 해독은 문학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쳐 서론에 제시한 표의 여러 연구자 및 현재의 교육현장에서 적지 않은 애호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해독의 수용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위(豆等良只 ↔ 置等羅只)에서도 보았지만, ‘良’과 ‘羅’는 음역이 비슷한 字들로 서로 호환될 수 있다는 점, 향찰에 이미 ‘良羅’가 어말 위치에 2회나 출현하고 있는바, 본조의 어말에 출현한 ‘羅良’과 음가상 변별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羅立’이란 것은 줄지어 선다는 뜻인데, 하늘로 올린 꽃의 형상으로는 어색할 뿐만 아니라, 도술가의 경우 그 꽃의 수효가 한역시에 ‘一片花’, 즉 ‘한 송이 꽃’으로 명시되어 있어 ‘羅立’할 수 있는 수효가 못 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모셔서 나립하라’는 차자의 용례로 보아도, 한역시와의 대응으로 보아도 성립할 수 없는 해독이다.

이상 도술가는 다음과 같이 재구되며, 현대어역은 다음과 같다.

향가	한역시
今日 此矣 散花 唱良 금일 이에 산화 불러 巴寶白乎隱 花良 봄습은 고자 汝隱 直等隱 心音矣 命叱 使以惡只 너는 고든 믹스민 명사 브리약 弥勒座主 陪立羅良 미륵좌주 피셔라아	龍樓此日散花歌 挑送青雲一片花 殷重直心之所使 遠邀堯攀大僊家 용루에서 오늘 산화가를 불러 하늘로 한 조각 꽃을 뿌려 보낸다. 은중한 곧은 마음의 시킨 바이니 멀리서 오는 도술의 부처님 맞이하라.
<현대어역> 오늘 여기서 산화가 불러 / 돋워 올린 꽃아! 너는 곧은 마음의 명 부려서 / 미륵불을 모셔라!	

<표6. 도술가의 현대어역>

4. 결론

이상에서 본고가 보이고자 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술가>의 일관된 해독을 통하여 향찰 표기 원리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그간 향찰 표기 원리에 대한 우리의 혼란은 적지 않았다. 그 중 가장 큰 것은 향찰자에 구사된 字의 잘못된 區分이었다. 향가의 어법을 살펴 볼 때, 신라인들이 구사한 향찰자는 크게 두 범주로 나뉜다. ‘글자 원래의 의미를 그대로 지니고 있는 正用字’와 ‘글자의 의미는 사라지고 소리값으로만 사용되는 借用字’가 그것이다.

正用字는 한자 본연의 용법이기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한자를 쓰는 나라에서는 모두 같은 뜻으로 파악되는 글자이다. 도술가의 첫 구에서 보이는 今日, 散花 등이 그것이다. 이 글자는 우리나라 中國·日本 등 모든 한자권에서 같은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므로 正用字인 것이다. 그런데 정용자도 다시 두 하위 범주로 나뉠 수 있다. 음으로 읽는 音讀字와 훈으로 읽는 訓讀字가 그것이다. 가령 ‘今日’을 /금일/로 읽는다면 이것은 正用字 중에서 音讀字이고, /오늘/로 읽는다면 이것은 정용자 중에서 訓讀字인 것이다.

借用字는 한자가 지닌 원래 뜻은 사라지고 오로지 발음기호로만 사용되는 글자를 말한다. 발음만 떼서 우리말을 표기하는 데 쓰는 것이기에 일본인이거나 중국인들은 이 글자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가령 도술가에 나온 ‘此矣’에서 ‘矣’는 ‘의(에)’라는 우리말의 처소격을 표시하기 위한 발음기호로만 사용된 것이므로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이 글자를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차용자 역시 두 범주로 다시 나누어진다.矣와 같은 것은 ‘矣’의 음에서 빌려 ‘의’가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만, 도술가의 마지막 구에 나오는 ‘立’과 같은 것은 ‘立’의 訓인 ‘서-’에서 소리값을 빌려 우리말의 ‘서’음이 필요한 곳에 쓴다. 그렇기에 음에서 소리값을 빌린 글자를 ‘音借字’, 훈에서 소리값을 빌린 글자를 ‘訓借字’라고 명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개념들이 적용되지 못하고 적지 않은 주요 선학의 연구들에서 ‘訓讀’, ‘訓借’의 개념이 잘못 쓰이고 있음을 보였다. 이에 이를 명확

히 규정하여 도술가의 모든 글자에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정용자·차용자 등의 개념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하여 교육이나 연구 현장에 정확히 활용되기를 도모하였다.

둘째, 도술가에 쓰인 여러 어휘들의 옛 모습 및 의미들을 보다 폭넓게 제시하면서 가장 바른 어형을 골라 수록하였다. 향가의 해독 방식이 근래에 들면서 도출 과정은 대체로 생략되고 결과 위주로 제시된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게 되다 보니 현재의 독자들은 결론만 주어진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제시된 어형이 당대의 표준형인지 아닌지에 대한 재확인이 쉽지 않은 방식이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도술가 첫 구에 나오는 ‘唱良’이라는 어절 하나만 두고도 ‘불너, 불어, 불리, 불러, 브르라, 브르어’ 등 각양의 모습으로 확인 없이 제시해왔던 것이다. 본고는 고문헌의 용례를 풍부하게 인용하며 풀이하여 그 중 실제로 있었던 형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제시는 교육 및 연구 현장에서 어형에 대한 혼란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휘들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점의 자료를 제시하여 정확한 의미로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도술가 풀이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마지막句에 나타난 ‘羅良’이다. 이 ‘羅’를 차용자로 보느냐, 아니면 의미를 가진 정용자로 보느냐가 첨예하게 대립하다가 이제는 학계나 교육현장에서 정용자로 보려는 추세가 강해졌음을 본다. 본고는 이 대립을 보다 다양한 각도로 검토·제시하고자 하였다. ‘羅’를 ‘별리어 서라’로 보고 있는 많은 연구자들이 있는데 이 점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함을 보였다. ‘羅’는 향찰이나 구결 등의 차자 표기에서 어말어미에 흔히 구사되는 音借字로 도술가의 경우에서도 그렇게 보아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더불어 한역시에서 ‘一片花’라고 하여 ‘한 송이 꽃을 던져 올림’을 분명히 하고 있기에 애초에 ‘羅立, 벌려섬’의 정황이 성립할 수 없는 것임도 보였다. 이러한 잘못된 해독에 대한 교정은 현재 교육현장에서 흔히 수록되는 “위협적 모습이 명령의 형태 ‘나립하라’로 남아 있어 주가의 흔적을 보여준다”²⁴⁾ 등의 학습 내용을 수정할 수 있

24) 강승원 외, 상계서. 38면.

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의 도술가의 연구와 교육에 있어 문학적 재고를 요하는 곳도 없지 않다. 어학적 풀이를 집중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각주에서만 간략히 소개할 수 밖에 없었지만, ‘두 개의 해가 나타남(二日並現)’이란 화소를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고심도 우리는 할 필요가 있다. 가장 일반적인 설명 방식 ‘해가 둘 나타났다는 것은 임금을 위협하는 세력의 등장을 뜻한다’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二日並現’의 원관념이라기보다는 ‘하늘을 통해서 보여주는 앞으로의 불길한 징조’이기 때문이다. ‘어떤 천체 현상이 먼저 있었고 그것을 신라인들이 해가 둘 나타난 것으로 파악했고, 그것은 임금을 위협하는 세력의 등장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가 전체적인 흐름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간 우리는 그런 점들을 간과한 채, 이일병현의 원관념과 향후 시사점을 섞어서 이해한 경향이 있었다. 그럴 때 본론의 각주에서 간략히 소개했듯 서영교의 주장 ‘경덕왕 19년(760)년 4월 1일에 나타났다고 하는 그 해는 아마 760년 4월에 전 세계적으로 관측되었던 핏빛해일 것이다’는 도술가 연구와 교육에 상당히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신선한 쟁점이 되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로 볼 때, 도술가의 새로운 어석과 그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된 문학적 검토는 향가의 교육 현장에서 적지 않은 역사적 흥미와 언어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길운, 『鄉歌新解讀研究』, 學文社, 1995.
- 강승원 외, 「고전시가」, 『해법문학』, 천재교육, 2016, 38면.
- 김승찬 외, 『鄉歌文學論』, 金承瓚 편저, 새문社. (1991 三版), 1986.
- 김완진, 『鄉歌解讀法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80.
- 김준영, 『鄉歌文學』, 螢雪出版社, 1979.
- 김학성, 『한국 고전시가의 정체성』, 대동문화연구총서 21,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2002.
- 김기중, 「도술가, 불국도의 선언」, 『한국시가연구』 38집, 한국시가학회, 2015, 225-250면.
- 김기중, 「삼국유사 소재 향가의 불교적 성격과 그 의미」, 『불교학보』 67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4, 243~271면.
- 김동욱, 「兜率歌研究」, 『國語歌謠의 研究』, 乙酉文化社, 1961, 40~41면.
- 김성기, 「도술가와 제망매가에 나타난 신라인의 불교 수용」, 『고문연구』 10집, 한국고문연구회, 1997, 190~201면.
- 김승찬, 「도술가」, 『고전시가의 이념과 표상』(임하최진원박사 정년기념논총), 논총간행위원회. 1991(본고는 국문학회 편, 『향가연구』(태학사, 1998) 수록분(373~392면)을 인용함.
- 김유미, 「월명사의 도술가 연구」, 『국어국문학』 25집,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988, 235~258면.
- 류해춘, 「월명사의 향가문학과 그 배경설화의 연구」, 『어문논총』 31, 경북어문학회, 1997, 423~442면.
- 박인희, 「경덕왕대 향가 4수의 의미와 역할」, 『한국시가문화연구』 42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18, 81~107면.
- 박재민, 「고등학교의 訓借字·音借字 교육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어교육』 139, 한국어교육학회, 2012.
- 박재민, 『신라향가변증』, 태학사, 2013, 120~125면.

- 서영교, 「월명사 도술가와 헬리혜성」, 『九山論集』 제9집, 보조사상연구원, 2004, 23면.
- 서재극, 『신라향가의 어휘 연구』, 계명대출판부, 1975.
- 서철원, 『향가의 유산과 고려시가의 단서』, 새문사, 2013.
- 小倉進平, 『郷歌及び吏讀の研究』, 경성제국대학. (아세아문화사영인본, 1974). 1929.
- 송정숙, 「兜率歌新攷」, 『어문교육논총』 8집,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1984, 305~319면.
- 신영명, 「도술가, 구원의 문학」, 『우리문학연구』 18집, 우리문학회, 2005, 187~203면.
- 신재홍, 『향가의 해석』, 집문당, 2000.
- 신재홍, 「향가에 나타난 정치의 이념과 현실 - 도술가, 안민가, 원가」, 『고전문학연구』 26, 한국고전문학회, 2004, 189~220면.
- 양주동, 『增訂 古歌研究』, 일조각, 1965.
- 양희철, 『三國遺事郷歌研究』, 태학사, 1997.
- 엄국현, 「도술가 연구」, 『한국민족문화』 43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2, 109~140면.
- 염은열, 「향가의 실재와 믿음 형성에 대한 고찰 -〈도술가〉와 〈제망매가〉, 〈혜성가〉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40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13, 291~331면.
- 오세정, 「주술가요의 제의적 상징 : 구지가, 도술가를 대상으로」, 『시학과언어학』, 서강대학교 시학과 언어학회, 2001, 203~229면.
- 최선경, 「도술가의 제의적 성격」, 『연민학지』 9집, 연민학회, 2001, 95~116면.
- 유육례, 「한국고전문학과 샤머니즘」, 『문학과종교』 23집, 한국문학과종교학회, 2015, 111~133면.
- 유창균, 『郷歌批解』, 형설출판사, 1994.
- 윤석민, 「고대 국어 연구의 지름길, 향가 : 처용가와 도술가를 중심으로」,

-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8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5, 83~105면.
- 윤영옥, 『韓國古詩歌의 研究』, 형설출판사, 1995.
- 이도흠, 「도술가와 화엄사상」, 『한국학논집』 14집,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8, 93~129면.
- 이동근, 「향가의 기원성과 소통방식」, 『인문과학연구』 35집, 대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205~239.
- 이완형, 「월명사 도술가조의 이해와 도술가의 성격」, 『어문학』 88집, 한국어문학회, 2005, 205~229면.
- 임기중, 『새로 읽는 향가문학』, 아세아문화사, 1998.
- 장영우, 「兜率歌는 삼행시다」, 『국어국문학』 122집, 국어국문학회, 1998, 215~230면.
- 정열모, 『鄉歌研究』, 사회과학원출판사, 1965.
- 정진원, 「月明師의 ‘兜率歌’ 해독에 대하여」, 『口訣研究』 20. 口訣學會, 2008.
- 정진희, 「王權 儀禮謠 도술가의 맥락과 의미」, 『한국시가문화연구』 42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18, 135~156면.
- 조현설, 「두 개의 태양, 한 송이의 꽃 - 월명사 일월조정서사의 의미망」, 『민족문학사연구』 54, 민족문학사연구소, 2014, 113~142면.
- 최 철, 『향가의 문학적 해석』, 연세대학교출판부, 1993.
- 최정선, 「도술가에 나타난 미륵신앙」, 『불교학연구』 제19호, 불교학연구회, 2008, 164면.
- 허남춘, 「혜성가, 도술가의 일원론적 세계관과 민심의 조화」, 『어문연구』 56집, 어문연구학회, 2008, 219~243.
- 황병익, 「散花, 直心, 座主의 개념과 도술가 관련설화의 의미 고찰」, 『한국시가문화연구』 35, 한국고시가문화학회, 2015, 393~427면.
- 황병익, 「삼국유사 二日並現과 兜率歌의 의미 고찰」, 『어문연구』 30,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2, 159면.
- 황패강, 「삼국유사와 향가 연구」, 『향가연구』, 국어국문학회 편, 태학사, 1998.

【Abstracts】

The Principle and Practice in Deciphering “Dosolga”: for the Purpose of Utilization in Education

Park, Jaemin

This paper is the result of trying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Dosolga” and its utilization in educational field by deciphering “Dosolga” by a consistent principle. The main focus of this paper on the decryption work is summarized in three.

First, the principle of the *hyangchal* transcription was applied strictly. In some of the studies that have led to the decipherment of *hyangchal*, we have seen quite a few confusions of concepts. This article clarifies the concepts and classifies letters in the *hyangchal* transcription into two broad categories: *jeongyongja* with real meaning and *chayongja* only used as phonetic symbols. *Jeongyongja* is subdivided into *eumdok* and *hundok*, and *chayongja* is divided into *eumcha* and *huncha*. I clearly marked these categories in every letters that appeared in “Dosolga” so that the concepts of the categories could be used in research and education without confusion.

Second, the archaic vocabulary used in *hyangga* was accurately presented. In the meantime, the decipherment of *hyangchal* has gradually changed to present only conclusive forms rather than abundant presentation of vocabulary. This is a simple method because only a conclusion was presented, but by eliminating the process, there was a problem in the credibility of the final conclusion. In other words, there

was an overflow of unidentified archaic words. In this regard, this paper attempts to suggest the most standard word forms based on 15th-century literature written in *hangeul* characters, so that the results can be easily used in research and education.

Third, the meaning of the vocabulary used in *hyangga* was examined in various angles, resulting in more probable decryption. In the meantime, we have overestimated som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letters used in *hyangga* and draw some conclusions from them. One such example is the deciphering of “陪立羅良” in the last phrase of “Dosolga” with “*moshyeo nariphara*”. This paper judges that such letters as “羅” should be viewed as *chaja* for several reasons. The process and conclusions are reviewed from various angles to enable in-depth discussion in research and education.

Key words : “Dosolga”, jeongyongja, chayongja, eumdok, hundok, eumcha, huncha, Wolmyeongsa, Halley’s Comet

이 논문은 2019년 10월 31일에 투고되었으며, 2019년 11월 18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9년 11월 2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